

고창군, 자녀 3명이상 비중 전국 최고

'2015년 출생통계' 이어 곡성군>무주군>장수군 순·전북이 상위권... 인구규모 유지 출산율 못넘어

고창 등 도내 4개 지역의 100가구 중 20가구 이상이 자녀가 3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셋째아 출생 비중이 높은 것으로는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전북이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15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셋째아 이상 출생 비중이 높은 상위 10개 지역은 전국에서 고창군(26%)이 제일 높았다.

즉 100가구 중 26가구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셈이다.

이어 전남 곡성군(25.5%), 무주군(24.3%), 장수군(24.2%)의 순으로 높았다.

부안군은 (21.0%)로 전국 10위에 기록됐다.

그러나 현재의 인구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출산율 2.1명을 넘어선 지역은 도내에서는 아무 곳도 없었다.

지난해 전북의 출생아수는 1만4,087명으로 지난 2012년 1만6,238명보다 2,151명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시가 5,37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시와 익산시가 각각 2,440명, 2,297명으로 2,000명대의 출생아를 겨우 받아 전북의 대표 3개 시 체면치레를 했다.

하지만 전북의 절반인 7개 지역의 경우 100~200명대의 출생아 신고에 그치면서 관련 대책이 시급했다.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적은 아기를



추석맞이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추석맞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4일 전주남부시장 상인사무실을 방문한 송하진 도지사는 하현수 전북상인연합회장 및 시군 전통시장 회장단들과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음소리가 울린 곳은 장수군으로 총 128명 출생에 그쳤다.

이어 무주군 144명, 순창과 임실군, 진안군이 각각 186명, 189명, 194명에 불과했다. 이어 부안군 267명, 고창 288명의 순을 나타냈다.

도내 모(母) 평균 출산 연령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다.

전북의 평균 출산연령은 지난해 31.70세로 지난해 31.48세보다 0.22세, 2005년 29.68세 보다는 2.02세 높았다.

도내에서는 30대 초중반 여성의 출산율이 가장 높았다.

도내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해당연

령 여자인구 1,000명 당)을 보면 30~34세가 119.0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25~29세가 78.0명, 35~39세는 46.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20~24세 17.6명, 40~44세 5.6명, 15~19세 1.9명, 45~49세 0.2명의 순을 보였다. /고민형 기자

국가직 7급 공무원 채용 시험 27일

도내 응시자 2070명 전주한일고·전주공고·전일중에서

국가직 7급 공무원 채용 시험이 오는 27일 치러진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가직 7급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이 오는 27일 전주 한일고와 전주공고, 전일중 등 총 3개 시험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시험의 도내 응시자는 2070명으로 지난해(1787명)보다 283명이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6만6712명이 응시했으며, 평균 경쟁률은 76.7대1이다. /뉴스

시험은 당일 오전 10시부터 140분간 치러지며, 수험생은 오전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수험생은 본인 확인을 위한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시험당일 시험장 부근은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

참깨·땅콩 고품질 생산관리 요령

참깨 : 꽃핀 후 35~40일경 순지르고 꼬투리 2~3개 갈라질 때 수확 땅콩 : 꽃망울 꽃핀 후 80일 · 종실용 100일경인 9월 중하순 수확

전북도농기원은 최근 온도가 높고 일조량이 증가하면서 참깨의 성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참깨의 종실이 충실하면 품질향상을 위해 적기에 순지르기 작업과 적기수확을 당부했다.

참깨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꽃을 피고, 꼬투리 아래쪽에서부터 익기 시작하기 때문에 종실의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 꽃이 핀 후 35~40일 사이에 순지르기 하는 것이 고품질 생산에 지름길이다.

수확은 줄기 아래쪽의 꼬투리가 2~3개가 익어서 갈라지고, 잎이 전체적으로 누렇게 변할 때 아침이나 저녁에 배어 작은 다발로 묶어서 햇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세워 꼬투리가 벌어질 때까지 말린 다음 탈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땅콩은 지방, 뷰아서 간식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가공원료로 이용되고 있는데, 수확해서 말리지 않고 썬서 먹는 풋땅콩과 수확한 후에 잘 말린 후 종실을 이용하는 종실용 땅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에 따르면 땅콩 수확방법은 땅콩을 캐내어 꼬투리를 채취하거나 낱씨가 좋으면 땅콩을 캐서 1~2일 정도 말린 다음 꼬투리를 채취해도 좋으며, 꼬투리의 그물 무늬가 선명한 것의 품질이 우수하며 수분함량이 8~10%가 되도록 말려주고, 저장할 경우에는 4℃의 저온고온에 40% 습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종자 땅콩은 꼬투리 채 보관했다가 파종할 때 꼬투리를 까서 종실만 파종하면 된다. /익산=장영원 기자

의 품질을 높이고, 수량을 많게 하기 위해서는 풋땅콩은 꽃핀 후 80일경에, 종실용 땅콩은 100일경에 수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통 4월 중·하순에 씨뿌리기를 하면 약 45일 후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수정된 자방은 길게 자라나 땅속에 들어가 꼬투리를 맺으며 꽃핀 후 45일 정도가 지나면 땅속의 꼬투리가 커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일찍 수확하는 풋땅콩은 꽃이 핀지 80일 후인 8월 하순부터 수확하고, 종실용 땅콩은 약 100일후인 9월 중순부터 수확하는 것이 적당하다.

수확방법은 땅콩을 캐내어 꼬투리를 채취하거나 낱씨가 좋으면 땅콩을 캐서 1~2일 정도 말린 다음 꼬투리를 채취해도 좋으며, 꼬투리의 그물 무늬가 선명한 것의 품질이 우수하며 수분함량이 8~10%가 되도록 말려주고, 저장할 경우에는 4℃의 저온고온에 40% 습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종자 땅콩은 꼬투리 채 보관했다가 파종할 때 꼬투리를 까서 종실만 파종하면 된다. /익산=장영원 기자

네이버, 김영란법 지식인 코너

네이버가 '김영란법'에 대한 궁금증을 지식인(KIN)에서 풀 수 있는 코너를 만들었다.

네이버는 지식인에 '청탁금지법 전문 Q&A 서비스(m.kin.naver.com/mobile/topic/brblaw.nhn)'를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네이버 지식인 이용자라면 누구나 김영란법 관련 질문을 남길 수 있다.

신뢰성 있는 답변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변호사 단체가 네티즌의 질문에 응답한다.

현재 청탁금지법 전문 Q&A 서비스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하는 19개의 김영란법 질의응답을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숙 네이버 서비스 총괄이사는 "지식인에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다보면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

'세계지방정부 아태 총회' 내달 5일 군산 개최

8일까지 '지역·생명·문화' 주제로 열려... 지방생존 전략 등 공유

세계지방정부 총회가 다음 달 군산에서 열린다.

전북도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16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가 군산에서 개최된다고 24일 밝혔다.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지역이 공동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는 지방정부 간 소통을 위한 자리다.

이번 전북총회는 '새로운 도시 아젠다 지역, 생명, 문화'를 주제로 도시와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인구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생존 전략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의 리더십, 거버넌스, 문화의 가치 등 아태지역의 지역개발 접근방법에 대해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다.

또 기후변화로 지구촌에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가라앉은 섬, 불디브와 키리바티를 초청해 지구 온난화에 대한 심각성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동참을 촉구할 계획이다.

아시아·태평양 지부 총회는 2년 주기로 개최되며, 이번 전북총회는 송하진 도지사가 민선 6기 취임 이후 첫 번째로 유치한 국제행사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북총회는 2006년 대구 개최 이후 10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전북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교류를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지방정부연합은 지방정부의 UN역할을 하는 세계 최대 지방정부 관련 국제기구로, 140개국 1,0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며, 아시아·태평양 지부는 세계지방정부연합 9개 지부 중 가장 규모가 큰 지역으로 36개국 140여 지방정부가 가입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공동의 가치와 목표 및 이익을 국제사회에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민형 기자

제10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안내

장애인의 삶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분야 참여 확대를 위하여 매년 장애인 가요제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 ① 참가자 신청 : 등록 장애인 누구나 (16세 이상)
- ② 신청방법 : 대중가요 1곡 선정하여 전화, 방문 팩스로 신청가능 (8월 31일까지)
- ③ 참고 : 도민누구나 관람가능. 행운권 추첨하여 상품 증정함

- * 일시 : 2016년 9월 3일 (토) 오후 4시 30분
- * 장소 : 전주 풍남문 문화광장 (남부시장 입구)
- * 주최 : 전북장애인 복지문제연구소
- * 후원 : 전라북도, 한국연예인협회 전북지부, 전북장애인 신문사



대회본부장: 김양욱



MC: 최현아(가수 겸 MC)

전북 장애인 복지문제 연구소

T. 286-6678 F. 287-6678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l.com